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조모의 생활만족도 및 영향요인

정재원¹ · 김문정²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¹,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²

Grandmother's Life Satisfaction and Influencing Factors by Grandparenting

Chung, Chae Weon¹ · Kim, Moon Jeong²

¹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²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study was to compare the factors of life satisfaction between grandmothers parenting and not parenting their grandchildren. **Methods:** A descriptive design with a convenience sampling was used for this study. From communities in S and U city, 85 parenting grandmothers (PG) and 103 non-parenting grandmothers (NPG) were recruited. The PG were those grandmothers who cared for preschooler grandchildren for their daughter or daughter-in-law who was employed. **Results:** The demographics of the two groups were similar, however the value of grandparenting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PG than the NPG ($t=4.56, p<.001$). In the PG, strong and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among the value of grandparenting, health status, quality of relations with adult children, and life satisfaction. However, demographics were more related to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NPG. The value of grandparenting,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grandmother-adult children relation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factors of life satisfaction ($F=20.75, p<.001$) explaining 42% of the variances. In the NPG, only health status was a significant factor ($F=50.66, p<.001$) explaining 33% of the variances.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grandmothers' perceptions of grandparenting and family relationships need to be incorporated into the lifestyle in order to support parenting grandmothers' life satisfaction while grandmothers' health is the common concern of elderly women's life satisfaction.

Key Words: Parenting, Life, Satisfaction, Aged, Health statu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09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보면, 25~29세가 69%로 가장 높고 육아가 진행되는 30~34세는 51.9%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45~49세에 65.4%로 최고점에 달하고 이후 점차 낮아지는 M자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

젊은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연속성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 중의 하나는 친정부모나 시부모의 도움으로(Lee, Lee, & Cho, 2006),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육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취업모가 개별 가족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취업모의 영유아 자녀 가운데 41%가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으며 친인척에 의한 양육은 4.7%에 불과하였다(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또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가운데 85.8%가 조모로(Bae, 2007)

주요어: 양육, 생활만족도, 조모, 건강상태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Moon Jeong, Department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66 Jejudaehak-ro, Jeju 690-756, Korea.
Tel: 82-64-754-3880, Fax: 82-64-702-2686, E-mail: mgy7955@hanmail.net

투고일: 2010년 8월 8일 / 1차심사완료일: 2010년 8월 27일, 2차심사완료일: 2010년 9월 2일 / 게재확정일: 2010년 9월 2일

손자녀 양육은 대부분 조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취업 모가 조모를 대리양육자로 선호하는 이유는 믿을 수 있고,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으며, 손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고, 건강하게 양육해주기 때문이며(Lee, 2006), 조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손자녀를 타인이 나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기 위해 직접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다(Kim, 2007).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심리건강은 손자녀 양육 이후에 가족 내 긴장과 갈등(Musil, Warner, Zauszniewski, Jeanblanc, & Kercher, 2006), 양육 스트레스(Kim, 2009; Oh, 2007), 성인자녀와의 갈등(Kim, 2007) 등으로 우울과 심리적 고통이 증가하는(Lee, Chung, & Kim, 2008) 동시에 노년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자존감과 삶의 의지가 고양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다(Kim, 2007). 이렇듯 손자녀 양육은 조모의 심리건강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관점에서 손자녀 양육의 영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활만족도는 노인들의 심리건강이나 성공적인 노화와 관련해 흔히 논의되는 지표로,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의 긍정적인 정도(Choi & Jang, 2006)를 뜻한다. 그러므로 생의 주기에서 자아통합이라는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조모에게 일상생활 가운데 느끼는 행복이나 기쁨 외에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조모의 주관적인 평가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모의 심리적 건강상태를 알아보는 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생활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생활만족도를 그들의 동년배 준거집단인 손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조모의 생활만족도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Lee 등(2008)의 연구 외에 매우 제한적이며, 주로 조손 가족 안에서 손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주양육 조모와 취업모의 가정에서 성인자녀와 손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공동양육 조모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Bae, 2007).

그리고 취업모의 자녀 양육과 조모의 건강한 삶과 조모에 의해 양육되는 손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생활만족도를 증진하는 정책과 전략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양육형태에 상관없

이 주양육 조모와 공동양육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관련요인을 살펴보면, 조모의 연령과 경제상태(Bae, 2007; Sands, Goldberg-Glen, & Thornton, 2005), 건강상태(Bae, 2007; Kim, 2009), 양육 스트레스(Oh, 2007), 손자녀 특성(Bae, 2007), 자녀와의 관계 및 손자녀 양육가치(Kim, 2009)가 관련요인으로 규명되었다.

한편 손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조모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상태(Oh & Yoon, 2006; Smith, Fleeson, Geiselmann, Settersten Jr., & Kunzmann, 2001), 자녀와의 관계(Yoon & Heo, 2007),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Sok & Kim, 2008)과 경제상태(Kang & Lee, 2007) 등이 있었다. 그러므로 연령과 경제상태, 건강상태, 자녀와의 관계는 손자녀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손자녀 양육가치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이었지만, 손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조모도 어느 정도 조모역할을 하고 있으며, 손자녀 양육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생활이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비양육 조모를 대상으로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 조모와 비양육 조모의 생활만족도 특성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향후 여성건강간호의 대상자인 조모의 생활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간호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조모의 생활만족도와 관련요인의 정도를 비교한다.
-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라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조모의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관련요인들의 차이를 비교하고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와 U시에 거주하는 조모를 모집 단위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손자녀 양육 조모는 손자녀와 동거하면서 돌봐주거나, 따로 살더라도 일주일에 5일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로, 딸이나 며느리가 취업모이고, 막내 손자녀가 취학 전 아동인 경우로 정하였다. 비양육 조모는 취학 전인 손자녀를 1명 이상 두었지만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는 조모로 정하였다. 설문에 응한 204명 가운데 불성실하게 답변한 자료 16부를 제외한 총 188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으며 이 가운데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는 85명, 양육하지 않는 조모는 103명이었다. 양측 검정에서 상관분석을 위한 최소 표본의 수는 유의수준 .05, 보통효과크기 .30, 검정력 .80일 때 84명이며, 회귀분석을 위해서는 독립변수 1개당 최소한 10명의 대상자가 확보되어야 한다(Lee, Chung, Kim, Song, & Hwang, 2006). 조모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기 위해 6개의 독립변수를 투입한 본 연구에서 두 비교집단의 표본 수가 각각 85, 103명이었으므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본 수는 충족되었다고 본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자가보고형 설문지에 연령, 교육 수준, 월소득, 배우자 유무, 자녀와의 동거 유무 등을 포함하였다.

2) 지각된 건강상태

지각된 건강상태는 조모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건강의 수준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Mossey와 Shapiro (1982)의 '자가평가 건강상태(self-rated health status)'를 Kim (1992)이 우리말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3개 항목으로 구성된 3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는 '나쁘다'에서 '좋다'까지 1점에서 3점을 부여하였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3점에서 9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이 높은 것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199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62$ 였으며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를 대상으로 한 Kim (2009)의 연구에서는 .78, 본 연구에서는 .71이었다.

3) 부모-자녀관계의 질

대부분의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므로 관계의 정서적 측면 한 가지보다는 관계에 대한 다면적 개념을 보기 위하여, 노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관계의 질을 만족감과 대화, 가까움의 정도로 측정된 Shin과 Cho (2004)의 '관계의 질' 도구를 사용하여 손자녀 양육을 계기로 조모와 상호작용이 많은 손자녀의 어머니와의 관계의 질을 조사하였다. 4개 항목으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는 '매우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4점을 부여하였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4점부터 16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것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83$ 이었고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를 대상으로 한 Kim (2009)의 연구에서는 .91,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4) 손자녀 양육가치

손자녀 양육가치는 조모가 손자녀 양육에 부여하는 가치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im (2009)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손자녀 양육가치 척도는 Kim, Park과 Kwon (2005)의 한국 어머니의 자녀가치 요인구조, 즉 경제적·도구적 가치, 사회적 가치, 심리적 가치에 근거하여 문항을 개발하였고 예비도구의 외관타당도(face validity),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거쳐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바 있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척도이며 점수는 '매우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을 부여하였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5~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모가 손자녀 양육에 부여하는 가치가 높은 것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 .80$ 이었고,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를 대상으로 한 Kim (2009)의 연구에서는 .79,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5)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일상생활 가운데 느끼는 행복이나 기쁨 외에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측정하고자 Yoon (1982)이 개발한 '생활만족도'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20개의 항목들이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긍정적 경험, 부정적 경험 등의 4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3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는 '아니다'에 0점, '그저 그렇다'에 1점, '그렇다'에 2점을 부여하였다. 가능한 총점은 0~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개발당시 기우반분법에 의한 신뢰도가 $r = .94$ 였으며,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를 대상으로 한 Kim (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0년 5월 한 달 동안 U시와 S시에서 편의 표출로 이루어졌다. 연구보조원은 간호학과 3학년 학생 2명으로 대상자 선정기준, 연구의 윤리적 고려 사항, 연구목적, 설문지 내용, 설문지 조사방법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손자녀 양육 조모를 표출하기 위해서 20개 어린이집을 접촉하여 연구목적과 과정, 자료수집내용 등을 설명하고 기관장의 허락을 얻었다. 자료수집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통해 조모가 양육하는 아동을 통해 설문지를 가정으로 전달하였고 한 달에 걸쳐 110부를 배부하고 94부를 회수하였다.

비양육 조모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연구보조원이 2개 보건소,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 공원 등에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조모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에, 국문해독이 가능한 조모는 자가보고로, 국문해독이 어렵거나 시력이 약한 조모는 연구보조원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1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비양육 조모에게는 한 달 동안 11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모두 회수하였다. 그러므로 양육 조모와 비양육 조모를 합쳐 총 2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04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93% 정도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게 답변하였거나 누락된 답변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총 188부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참여의 자발성과 중단 가능성, 익명성,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해 설명하였고 설문에 응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양육 조모 집단과 비양육 조모 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χ^2 test와 t-test를 이용하였다.
- 두 집단 간 생활만족도와 관련요인들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 두 집단 각각의 생활만족도와 관련요인들 간의 상관관

계 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 두 집단 각각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총 188명으로, 손자녀 양육 집단은 85명, 비양육 집단은 103명이었다.

양육 집단의 평균 연령은 62세였으며 월소득은 123만원 정도였다. 그리고 현재 배우자가 있는 조모가 63.5%였으며 자녀, 손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조모가 40%였다.

비양육 집단의 평균 연령은 62세로 양육 조모와 같았고 월소득은 151만원으로 양육 집단보다 조금 많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조모가 양육 집단에 비해 많았지만 이들 모두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양육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특성은 자녀와의 동거 여부가 유일하였는데 비양육 집단의 93.2%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았다.

2.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관련요인의 차이

대상자의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관련요인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두 집단은 건강상태($t=-1.70, p=.09$), 부모-자녀관계의 질($t=0.58, p=.56$), 생활만족도($t=-1.23, p=.22$)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손자녀 양육가치에서는 양육 집단이 비양육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t=4.56, p=.00$).

3. 생활만족도와 관련요인 간의 상관관계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라 조모의 생활만족도와 관련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Table 3). 손자녀 양육 조모에서는 조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r=-.37, p=.00$)과 수입 정도($r=-.54, p=.00$)가 낮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r=-.28, p=.00$)가 많았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거나($r=.44, p=.00$) 유배우자인 경우($r=.51, p=.00$)에 월수입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건강상태가 더 좋았고($r=.25, p<.05$) 건강상태와 손자녀 양육가치와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29, p=.00$)가 있었으며 손자녀 양육가치

Table 1. Comparison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by Grandparenting

(N=188)

Characteristics	Categories	PG (n=85)	Non PG (n=103)	χ^2 or t	p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61.9±6.0	61.9±6.8	-0.06	.96
Monthly income (10,000 won)		123.0±136.8	151.2±163.9	-1.26	.21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34 (40.0)	44 (42.7)	2.99	.39
	Middle school	25 (29.4)	23 (22.3)		
	High school	23 (27.1)	27 (26.2)		
	≥College	3 (3.5)	9 (8.8)		
Living with a spouse	Yes	54 (63.5)	76 (73.8)	2.30	.13
	No	31 (36.5)	27 (26.2)		
Living with adult children	Yes	34 (40.0)	7 (6.8)	30.11	.00
	No	51 (60.0)	96 (93.2)		

PG=parenting grandmother.

Table 2. Differences in the Study Variables by Grandparenting

(N=188)

Variables	Range	Min~Max	PG (n=85)	Non PG (n=103)	t	p
			M±SD	M±SD		
VG	5~25	8~25	17.7±3.5	15.3±3.8	4.56	.00
Health status	3~9	3~9	5.42±1.4	5.78±1.4	-1.70	.09
QGAR	4~16	7~16	12.2±1.9	12.1±2.2	0.58	.56
Life satisfaction	0~40	7~40	24.2±8.4	25.7±8.6	-1.23	.22

PG=parenting grandmother; VG=value of grandparenting; QGAR=quality of grandmother-adult children relations.

가 높은 경우 성인자녀와의 관계 역시 좋게 나타났다($r=.51$, $p=.00$). 이들 조모의 생활만족도는 손자녀 양육가치가 높고($r=.52$, $p=.00$), 건강상태가 양호하며($r=.50$, $p=.00$),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r=.44$, $p=.0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 비양육 조모들에서도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 수입, 교육, 배우자 유무는 양육 조모들과 유사한 상관관계 양상과 수준을 보였다. 그런데 손자녀 양육 조모들과는 달리 이 특성들이 비양육 조모들의 건강상태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월수입($r=.22$, $p<.05$)과 교육수준($r=.33$, $p=.00$)이 낮고, 고령($-.23$, $p<.05$)이거나 배우자가 없는($r=.22$, $p<.05$) 조모들의 건강상태는 더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들은 부부만 핵가족의 형태로 사는 경우($r=-.28$, $p=.00$)가 많았던 점은 비교집단과 다른 점이었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손자녀 양육가치($r=.22$, $p<.05$)가 높고 자녀와의 관계($r=.42$, $p=.00$)도 좋았다. 비양육 조모들의 생활만족도는 건강상태($r=.58$, $p=.00$), 부모-자녀관계의 질($r=.36$, $p=.00$), 연령($-.23$, $p<.05$), 교육수준($r=.22$, $p<.05$) 순으로 상관성이 높았으

나 손자녀 양육가치는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4. 손자녀 양육 여부별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손자녀 양육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양육 조모 집단에서는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손자녀 양육가치, 건강상태,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상관관계가 높은 순서대로 회귀식에 투입하였고, 비양육 조모 집단에서는 건강상태, 부모-자녀관계의 질, 연령, 교육수준 순서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방법은 각 변수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을 알기 위해서 단계입력방식(stepwise)을 사용하였다.

손자녀 양육집단의 생활만족도는 손자녀 양육가치, 건강상태와 부모-자녀관계의 질 등 3개 요인에 의해 42%가 설명되었다. 손자녀 양육가치, 건강상태,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모두 투입한 모형 3에서 표준화 계수(β)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건강상태($\beta=.37$, $p=.00$), 손자녀 양육가치($\beta=.31$, $p=.00$), 부모-자녀관계의 질($\beta=.21$, $p=.03$) 순서로 영향

Table 3. Correlations among the Study Variables

(N=188)

Variables	Categories	Age	Income	Education	LS	LAC	VG	HS	QGAR
PG (n=85)	Age	1							
	Income	-.54**	1						
	Education	-.37**	.44**	1					
	LS	-.28**	.51**	.30**	1				
	LAC	-.02	-.01	.01	-.09	1			
	VG	-.12	-.06	.09	.04	.19	1		
	HS	-.14	.21	.15	.25*	-.05	.29**	1	
	QGAR	-.09	.03	.17	-.08	.07	.51**	.19	1
	Life satisfaction	-.16	.08	.11	.08	.11	.52**	.50**	.44**
Non PG (n=103)	Age	1							
	Income	-.51**	1						
	Education	-.42**	.56**	1					
	LS	-.24*	.37**	.23*	1				
	LAC	.20*	-.17	-.19	-.28**	1			
	VG	.11	-.11	-.01	.23*	-.06	1		
	HS	-.23*	.22*	.33**	.22*	-.17	.22*	1	
	QGAR	-.01	.18	.20*	.19	-.03	.32**	.42**	1
	Life satisfaction	-.23*	.15	.22*	.14	-.06	.08	.58**	.36**

PG=parenting grandmother; LS=living with a spouse; LAC=living with adult children; VG=value of grandparenting; HS=health status; QGAR=quality of grandmother-adult children relations.

* $p < .05$; ** $p < .001$.

력이 컸다. 결과적으로 손자녀 양육 조모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손자녀 양육가치를 높게 인지할수록, 그리고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조모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손자녀 비양육 집단에서 첫 단계로 투입한 건강상태에 의한 생활만족도 설명량은 33% ($F=50.66, p=.00$)였다.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연령, 교육수준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였을 때는 설명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아 건강상태 ($\beta=.58, p=.00$)만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논 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면서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조모들의 생활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간호학적인 방안과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손자녀 양육 조모와 비양육 조모 간에는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손자녀 양육 조모가 비양육 조모보다 자녀 및 손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유

의하게 높았다. 영유아 손자녀를 양육하는 공동양육 조모를 대상으로 한 Bae, Roh와 Kweon(2008)의 연구에서 조모, 자녀와 손자녀로 구성된 3세대 가족은 60.5%, Oh (2007)의 연구에서는 49.6%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에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는 3세대 가족 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는데 이렇게 3세대 가족이 함께 살다보면 가족관계에서 갈등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 실제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가족은 공동양육 조모라 할지라도 비양육 조모의 가족보다 가족 내 긴장과 갈등이 높았는데(Musil et al., 2006),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은 생리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 건강의 위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Smith & Glazer, 2006). 또한 손자녀 양육 조모는 비양육 조모보다 신체적인 건강상태가 낮다고 보고되었다(Bryson & Casper, 1999). 그러나 본 연구에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는 비양육 조모와 비교했을 때 건강상태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는 Hughes, Waite, LaPierre와 Luo(2007)가 조모의 일반적 특성, 다른 역할들, 손자녀 양육 이전의 건강상태를 통제했을 때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라 조모의 건강상태가 다르지 않았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Table 4. Factors of Life Satisfaction by Grandparenting

(N=188)

Group	Model	Variables	β	SE	Adj. R ²	F	p
PG (n=85)	1	VG	.52	.22	.27	30.99	.00
	2	VG	.42	.21	.39	27.53	.00
		HS	.38	.54			
3	3	VG	.31	.24	.42	20.75	.00
		HS	.37	.53			
		QGAR	.21	.44			
Non PG (n=103)	1	HS	.58	.50	.33	50.66	.00

PG=parenting grandmother; VG=value of grandparenting; HS=health status; QGAR=quality of grandmother-adult children relations.

두 군 간에 일반적 특성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양육 조모에서는 일반적 특성이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없었으나 비양육 조모에서는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연령, 월소득, 교육수준 등의 일반적 특성이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 내지는 상관성이 있다고 밝힌 연구들(So, 2007)이 있지만 아무런 상관이나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Bae, 2007)도 있어서 일반적 특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성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 손자녀 양육여부에 따라 일반적 특성이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던 점과 비양육 조모의 손자녀 양육가치가 양육 조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던 점을 동시에 고려할 때, 일반적 특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손자녀 양육가치의 매개효과를 추후 검증해 볼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두 군의 생활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심도 있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손자녀 양육의 정도를 양육시간으로 측정했을 때 주당 10~29시간 양육하는 조모와 30시간 이상 양육하는 조모 간에는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없었으며(Lee et al., 2008), 양육의 정도를 양육역할 수행정도로 보았을 때는 역할을 많이 수행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았다(Kim, 2009). 딸이나 며느리가 전업주부여서 손자녀 양육의 책임을 분담하지 않은 조모도 어느 정도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기도 하므로 양육역할 수행정도에 따라 손자녀 양육 조모와 비양육 조모의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손자녀 양육 기간은 선행연구(Bae, 2007)에서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이 아니라 밝혀졌지만 이들 모두 횡단연구였으므로 양육기간과 생활만족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양육 조모의 생활만족도가 비양육

조모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양육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양육의 긍정적인 효과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은 건강상태, 손자녀 양육가치, 부모-자녀관계의 질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 반면에 비양육 조모에서는 건강상태만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건강상태는 손자녀 양육 여부를 떠나 모든 조모들에게 있어서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Bae, 2007; Oh, 2007; So, 2007). 본 연구결과를 통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들에게 있어서 건강상태는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인 동시에 손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양육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원이 된다는 관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건강증진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조모는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피로나 체력부족을 많이 호소(Bae et al., 2008; Waldrop & Weber, 2001)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 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사회에서 도구적인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모는 손자녀의 욕구를 우위에 둬으로써 건강관리나 치료를 연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Waldrop & Weber, 2001) 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문간호를 통해 직접 찾아가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겠다.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Yoon & Heo, 2007) 본 연구의 비양육 조모에게서는 유의하지 않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비양육 조모의 93.2%가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점으로 보아 비양육 조모는 자녀로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무교환적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생활만족도 간에 보통 정도의 상관성이 나타난 점으로 보아 충분하지 않은 표본의 크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에게 있어서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생활만족도의 유의한 관련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이들이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자녀와 사회적 지원을 활발하게 교환하면서 상호지원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손자녀 양육가치가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것은 손자녀 양육의 자율성은 생활만족도와 연관이 있고(Lee et al., 2008), 행동의 자율성은 가치를 통한 동기부여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통합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의 가치를 사고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Deci & Ryan, 2008). 따라서 조모가 손자녀 양육가치를 사고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손자녀 양육가치를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으로 취업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조모의 생활만족도가 증진되고 조모와 성인자녀 간의 관계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 85명과 양육하지 않는 조모 103명의 생활만족도 특성과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을 비교 조사하여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라 조모의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한 개별적인 전략을 마련함에 있어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된 연구이다.

연구결과 손자녀 양육 조모와 비양육 조모는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손자녀 양육가치에서만 손자녀 양육 조모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손자녀 양육 조모에서는 손자녀 양육가치, 건강상태, 부모-자녀관계의 질, 생활만족도 간에 강한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손자녀 양육가치, 건강상태,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생활만족도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비양육 조모에서는 일반적 특성이 건강,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고, 건강상태만 생활만족도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여성의 활발한 취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주요 자원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이다. 양적, 질적으로 충족된 사회보육 서비스가 제한적인 실정에서 이들 조모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일은 성인자녀의 일과

가정의 양립, 3세대 가족의 가족기능 증진, 학령전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과 조모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조모의 특성을 비교하고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이들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추후 다양한 간호방안을 시도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 조모의 사회문화적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특성으로서 손자녀 양육가치를 주요 변수로 도입하고, 손자녀 양육을 중심으로 확대된 가족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조모가 인식하는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주요 변수로 도입하여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조모의 생활만족도를 비교하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실무적 차원에서는 손자녀 양육 조모들의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내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모들이 요구하는 교육내용과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또한 손자녀 양육에 있어 조부들의 역할을 창출하고 분담하기 위한 실무적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둘째, 조모의 손자녀 양육이 성인자녀를 비롯한 가족 기능과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손자녀 및 조모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성인자녀와 동거 및 비동거 형태로 손자녀를 공동양육하는 조모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조손가족의 형태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들에 대한 반복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Bae, J. H. (2007). Factors affect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parenting grandparents and co-parenting grandparents. *Social Welfare Policy*, 29(4), 67-94.
- Bae, J. H., Roh, S. K., & Kweon, K. S. (2008). Current practices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nd their needs for support.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5(1), 379-410.
- Bryson, K., & Casper, L. M. (1999). *Current populations reports: Special studies* (pp. 23-198). Washington DC: U. S. Census Bureau. Retrieved June 16, 2010, from <http://www.census.gov/prod/99pubs/pp.23-198.pdf>
- Choi, S. J., & Jang, I. H. (2006). *Welfare for the aged*.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Deci, E. L., & Ryan, R. M. (2008). Facilitating optimal motivation

-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ross life's domains. *Canadian Psychology*, 49(1), 14-23.
- Hughes, M. E., Waite, L. J., LaPierre, T. A., & Luo, Y. (2007). All in the family: The impact of caring for grandchildren on grandparents' health.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2(2), S108-119.
- Kang, H. S., & Lee, J. H. (2007). The relationship of health and life of satisfaction on rural elderlies. *Health and Social Science*, 21, 51-64.
- Kim, M. J. (2007). A study of the caregiving burden on grandmothers who raise their grandchildren: A phenomenological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6), 914-923.
- Kim, M. J. (200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life satisfaction in grandmothers parenting grand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S. Y. (1992). *Relationships between older persons' conceptualizations of time and heal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U. C., Park, Y. S., & Kwon, Y. E. (2005). Intergenerational analysis of family values among Korean mothers: With specific focus on values of children, socialization attitudes, and support of elderly par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1(1), 109-142.
-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Survey of actual condition of child rearing*. Retrieved June 16, 2010, from <http://ups.kosis.kr/upload/Magazine/NEW/KP/KS1025.xls>
-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 *Summary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gender and age group*. Retrieved June 16, 2010, from http://kosis.kr/ups3/service/ch_file_down.jsp?PUBCODE=KL&FILE_NAME=/ups3/upload/Magazine/NEW/KL/040302.xls&SEQ=230
- Lee, E., Chung, Y., Kim, J., Song, R., & Hwang, K. (2006). *Statistical methods for health care research*. Seoul: Koonja.
- Lee, E. Y. (2006). *A study on the proxy nursing in respect to working mothers: Focusing on the nursing of grandchildren by grandpar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Lee, J. K., Lee, E. A., & Cho, J. E. (2006). Negotiating work and family life in South Korea: Class differences among working women.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22(2), 41-79.
- Lee, J. Y., Chung, K. M., & Kim, W. K. (2008). The mental health study of caregiving grandmothers comparing with non-caregiving grandmothers of middle class.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3(3), 325-341.
- Mossey, J. M., & Shapiro, E. (1982). Self-rated health: A predictor of mortality among the elderl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1(8), 800-808.
- Musil, C. M., Warner, C. B., Zauszniewski, J. A., Jeanblanc, A. B., & Kercher, K. (2006). Grandmothers, caregiving, and family functioning.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1(2), S89-98.
- Oh, J. A. (2007). A structural model on the quality of life of grandmother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3(2), 201-211.
- Oh, S. H., & Yoon, D. S. (2006). A comparative study on quality of life on the elderly among urban, farm and island area.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2, 119-147.
- Sands, R. G., Goldberg-Glen, R. S., & Thornton, P. L. (2005).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ositive well-being of grandparent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45(4), 65-82.
- Shin, H. Y., & Cho, B. E. (2004). Rewards, costs and relationship quality perceived by caregiving adult children: A comparison between Koreans and Korean Americans.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s Association*, 9(1), 153-174.
- Smith, J., Fleeson, W., Geiselmann, B., Settersten Jr., R. A., & Kunzmann, U. (2001). Sources of well-being in very old age. In P. B. Baltes, & K. U. Mayer (Eds.), *The Berlin aging study: Aging from 70 to 10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ith, T. W., & Glazer, K. M. (2006). Hostility, marriage, and the heart: The social psychophysiology of cardiovascular risk in close relationships. In D. R. Crane & E. S. Marshall (Eds.), *Handbook of families and health: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Thousand Oaks, CA: Sage.
- So, K. S. (2007). A study on the social support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urban-rural complex cit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8, 7-30.
- Sok, S. H., & Kim, K. B. (2008). A comparative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between urban and rural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3), 341-350.
- Waldrop, D. P., & Weber, J. A. (2001). From grandparent to caregiver: The stress and satisfaction of raising grandchildren. *Families in Society*, 82(5), 461-472.
- Yoon, G. (1982). Construction of the life satisfaction scale for the aged. *Proceedings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vention*, 26-30.
- Yoon, H. S., & Heo, S. Y. (2007).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 on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7(3), 649-666.